

봄비처럼 마음 적시는 따뜻한 멜로... 연인과의 재회

film review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지금 만나러 갑니다

日소설가 이치카와 다쿠지 원작 배우의 연기·영화의 미장센 감탄

‘세상을 떠난 연인과 재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세상을 떠나기 전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여운이 진한 영화가 개봉한다. 바로 손예진·소지섭 주연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감독 이장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잠들어있던 연애 세포를 깨우는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14일, 화이트데이에 관객을 만난다. 원작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곳곳에 웃음 포인트를 심어 새로운 색깔로 재탄생한 이 영화는 관객의 감성을 충족하게 적셔줄 것이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일본 소설가 이치카와 다쿠지의 동명 소설과 영화를 원작으로 했다. 세상을 떠난 아내가 기억을 잃은 채 돌아온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그대로 남겨둔 채 더디고 어설피지만, 씩씩하게 일상을 채워가는 남자 우진(소지섭). 어느 때보다 긴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 날, 비가 오면 다시 돌아오겠



다는 믿기 힘든 약속을 남겼던 수아(손예진)가 기적처럼 돌아온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돌아온 수아와 우진은 새롭게 추억을 쌓아가며 사랑을 다시 시작한다.

다시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의 기적같은 재회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판타지적인 설정에 현실적 공감을 더해 관객의 마음을 두드린다. 아내가 돌아온 후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한 우진. 모든 게

낮선 수아에게 지난 날들에 대해 들려주며 기억을 짚어나간다. 영화는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진과 수아 역에는 소지섭과 손예진이 캐스팅됐다. ‘회사원’ ‘사도’ ‘군함도’ 등 대작품을 통해 선 굵은 인상을 남겼던 소지섭이 우진으로 분해 섬세한 감성 연기를 펼친다. 첫사랑에 빠진 모습부터 다시 시작된 만남에 설레하고 아내와의 행복을 놓치고 싶

지 않은 절절한 모습까지 깊어지는 눈빛 연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영화를 본 후에는 남편 캐릭터에 대한 인상이 크게 남지 않지만, 이장훈표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진의 순애보가 섬세하게 그려져 상당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클래식’ ‘내 머리 속의 지우개’ 등을 통해 진정한 ‘멜로퀸’에 등극한 손예진

은 신비한 매력까지 겸한 새로운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영화의 주된 내용은 소지섭과 손예진의 로맨스다. 두 사람의 절절한 눈빛과 힘이 맞는 연기 호흡은 진한 애정신이 없어도 실제 연인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소지섭과 손예진의 감정 연기에 관객은 매료될 것이다.

어린 우진과 수아 역에는 각각 이유진과 김현수가 캐스팅돼 학창시절 짝사랑하는 소년·소녀의 모습을 담았다. 이밖에 고창석, 손여은, 이준혁 등이 출연해 스크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특히 대체불가 매력의 소유자 고창석(홍구 역)은 적재적소에 웃음을 유발해 극의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우진의 둘도 없는 친구인 동시에 우진의 아들 지호(김지환)에게는 든든한 삼촌, ‘홍구 삼촌’의 활약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잔잔한 멜로영화라 자칫 지루할 거라 예상하겠지만, 고창석이라는 배우가 그 예상을 단번에 깨부숴버렸다.

배우들의 연기도 일품이지만,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미장센에도 감탄이 절로 나온다. 자연 풍광과 어우러진 우진의 집과 수아의 작업실, 그리고 비오는 날 기적처럼 수아를 만난 기차길 터널까지 아름다운 동화 속 장소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촉촉한 봄비처럼 찾아온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관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3월 14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31분.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큰평의비름

가장 아름다운 날은 오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아직 찾지 못한 별이지

/고홍근 작

신의현,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서 값진 동메달

남자 좌식 15km 종목 출전 평창 패럴림픽 韓 첫 메달

신의현(37·창성건설)이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메달을 안겼다.

신의현은 11일 강원도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좌식 종목에서 42분 28초 9를 기록, 동메달을 수확했다.

평창 패럴림픽에서 나온 한국 대표팀의 첫 번째 메달이자, 한국이 역대 동계패럴림픽에서 거둔 세 번째 메달이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장애인 알파인스키 종목의 한상민과 2010년 밴쿠버 대회 휠체어 컬링 종목 대표팀이 각각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투혼의 메달’이었다. 전날 바이애슬론 7.5km 남자 좌식에서 아쉽게 5위에 올랐던 그는 이튿날 도전한 자신의 주종목 크로스컨트리 장거리에서 값진 동메달을 따냈다.

이날 심기일전하고 나선 신의현은 29명의 출전 선수 중 28번째로 출발했다. 3.8km 구간까지 10분 54초 3으로 5위를 기록했던 그는 이후 5.92km 구간에서 4위로 올라섰고, 12.99km 구간에서 중국 쟁쟁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신의현은 경기 막판 온 힘을 쏟으며 순위를 유지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우승은 41분 37초 0을 기록한 우크라이나 막심 야로비치가 차지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11일 강원도 평창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좌식경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한국 신의현이 피니시라인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8 | 해짐 / 18:36

3월 12일
음력 : 1월 25일

수도권 날씨
2 ~ 1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14, 동두천 -1/15, 가평 -1/15, 파주 -3/13, 서울 2/15, 양평 -1/16, 인천 2/11, 수원 1/14, 용인 1/14, 평택 -1/16, 백령도 3/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 스피드스케이팅의 장거리 기대주 정재원(동북고·사진)이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50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유망주인 임은수(한강중)가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프리스케이팅 개인 최고점을 달성하며 종합 5위에 올랐다.
-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알파인스키 시각장애 부문에 가이 드러너 고운소리와 함께 출전한 양재림이 1분43초03의 기록으로 참가 선수 11명 중 9위에 올랐다.
- ▲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 P 파리마오펜 32강에 진출했다. 정현은 토마시 베르디흐(체코)를 상대로 16강 진출을 다룬다.
- ▲ 2012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고(故) 정재성 삼성전기 배드민턴 감독의 발인이 11일 오전 엄수됐다. 정 감독이 현역 시절 7년간 남자복식 파트너로 활약하며, 런던대회 동메달을 합작한 이용대가 운구에 참여했다.
- ▲ 롯데 자이언츠가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제30회 롯데기 초·리틀·중·고교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 ▲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세 번째 아들을 얻었다.